

데이코쿠서원(帝國書院) / 사회과 중학생 역사 - 일본의 행보와 세계의 움직임 (최신 개정판)

(\*가 달려 있는 항목은 추후에 번역할 예정입니다.)

## 제6장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일본

근현대 ② 전시실

### 1절 세계 정세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타임슬립) 근현대 ② (20세기 전반)

#### 1.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

##### 유럽 제국[諸國]의 대립

19세기 말 독일은 급속하게 공업화를 추진하고 각 지역으로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이미 식민지 지배를 확대시켰던 영국과 대립하게 되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삼국동맹[三國同盟]**을 맺자 영국은 프랑스·러시아와 **삼국협상[三國協商]**을 맺어 대립은 심화되었다.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여러 민족들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억누르려는 유럽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한 슬라브 민족(러시아·세르비아)과 게르만 민족(독일·오스트리아)과의 대립도 있어서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고 있었다.

1914(다이쇼[大正] 3)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암살되자(**사라예보 사건**), 오스트리아는 즉각 세르비아에 선전[宣戰]하였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돕고, 독일은 삼국동맹에 의해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했기 때문에 대항하는 영국도 독일에 선전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 <신병기와 전장[戰場]>

「독가스다……독가스다……독가스다……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가스 마스크를 쓴 이 최초의 2, 3분은 생과 사의 갈림길인 것이다. 이 마스크에 가스가 들어오는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나는 야전병원에서 무서운 광경을 목격해서 알고 있다. 그것은 독가스에 오염된 병사가 아침부터 밤까지 목졸려 죽는 듯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타서 짓물려진 폐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광경이다.

……장갑탱크(전차)는 처음엔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결국 중요한 병기가 되었다. 철판으로 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긴 열을 지어 굴러 오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전쟁의 두려움을 구체화 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탱크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포탄이 떨어져 만든 구렁 안으로 굴러들어가서는 다시 기어 올라와, 전혀 멈춘다는 것을 모르는 그 모습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모르는 강철의 짐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레마르크[E. M. Remarque]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 일부 요약)

사진: 참호에서 싸우는 병사

사진: 신병기의 하나인 전차

「전차의 등장으로 싸움의 양상은 변화하였을까.」

그림: **끓고 있는 가마솥** 폭발 직전의 발칸이라는 가마솥을 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의 5개국이 억누르고 있다.

### 총력전과 신병기[新兵器]의 등장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뿐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사람들이 동원되어, 최초의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되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어, 병사는 물론 민간인도 전쟁 체제에 협력한다고 하는 총력전이 되었다.

또한 전차·비행기·잠수함과 독가스와 같은 신병기가 사용되어 그때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 미국의 참전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독일이 중립국의 배까지 공격하게 되자 1917년 독일에 선전[宣戰]하였다. 그 결과 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국 측이 우세해졌다.

### 러시아혁명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러시아에서는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여 혁명이 일어나 레닌을 지도자로 해서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혁명정부는 무병합·무배상의 조건으로 전쟁을 중단하도록 호소하여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주 1) 1922년에는 국명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으로 하였다.

### 사진 ⑦: 레닌의 연설

주 1. 당시 전승국이 패전국 영토의 일부를 병합하고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통례가 되어 있었다.

<해 보자>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새롭게 사용된 병기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것들의 특징과 그 영향을 표로 만들어 보자.
-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도표: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동맹관계

사진: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여성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지도: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유럽 러시아·영국·프랑스 등을 연합국, 독일·오스트리아 등을 동맹국이라 한다.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나중에는 연합국 측으로 참전하였다.

## 2. 일본의 참전과 전쟁의 영향

### 일본의 참전과 21개조의 요구

일본은 일영동맹[日英同盟]을 이유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유럽 나라들이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중국에 힘을 확대하려 한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독일의 거점인 산둥반도의 칭다오[靑島]를 점령하고, 태평양의 독일령 남양제도[南洋諸島]도 손에 넣었다.

게다가 일본은 1915년, 중국에 대해 **21개조의 요구**를 제시했다. 산둥 반도에 대한 독일의 권리를 일본에 넘기고, 「만주」(중국 동북부)와 몽고의 일부로 일본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 등을 요구한 것이었다.④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반대 운동이 일어나, 중국 정부도 저항했지만, 일본인 고문을 고용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대부분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중국에 대한 21개조의 요구> (일부 요약)

하나. 중국 정부는 독일이 산둥성[山東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일본에 넘길 것.

하나. 일본의 뤼순·다롄에 대한 조차[租借] 기한, 남만주철도에 대한 이권의 기한을 99년 연장할 것.

하나.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의 광산 채굴권을 일본 국민에게 허가할 것.

하나. 중국은 정치·경제·군사 고문으로 중앙 정부에 유력한 일본인을 고용할 것.

지도 ④: 산둥성과 남만주철도

### 일본 경제의 급성장

유럽 나라들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세계경제에서 힘을 키운 것은 일본과 미국이었다. 일본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선박과 철강 등을 생산하여 중공업이 급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아 무역액이 적자에서 흑자로 되었다. 이 호경기(대전경기[大戦景氣]) 속에서 나리킨[成金](역주: 벼락부자)이라 불리는 부자들이 늘어났다. 또한 메이지 시대 이래 일본경제의 중심에 있었던 미쓰비시[三菱]·미쓰이[三井], 스미토모[住友]·야스다[安田]와 같은 재벌들도 더욱 힘을 갖게 되었다. (주 1)

주 1.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한 일족.

사진: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 (1919년) 나가사키는 히로시마현의 구레[呉]와 함께 유명한 조선 도시였다.

「일본의 경기가 좋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그림: 『**나리킨 영화 시대**[成金榮華時代]』 (1928년)

도표: **일본의 수출입 변화** (무역연표, 기타)

### 시베리아 출병과 쌀 소동

러시아 제국[帝國]이 혁명으로 인해 사라진 것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1918년 사회주의혁명의 확대를 저지하고 실패시키려 한 일본과 미국 등은 시베리아에 군대를 보냈다. 이 시베리아 출병에 의한, 출병을 위한 쌀 매입과 이를 예상한 상인들의 쌀 매점으로 쌀 가격은 급격하게 올랐다. 또한 대전 중에 일본의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초월하여 공업국이 되어 있던 사실도 쌀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1918년 7월 도야마현[富山縣]의 어촌 주부들이 쌀을 현 밖으로 반출하는 것에 반대하며 싸게 팔 것을 요구하였다. 이 움직임은 쌀 가격이 급격 당하는 **쌀소동**[米騷動]이 되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도시와 탄광에서도 발생하였다. 경찰 뿐 아니라 군대까지 출동하여 운동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내각까지 교체되는 소란으로 발전하여 정부는 쌀 소동을 진정시키고자 아시아 각국에서 쌀을 매점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각지에서 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시베리아 출병도 실패로 끝났다.

그림: **쌀소동** (나고야시 도쿠가와미술관 소장) 나고야의 쌀 소동을 그린 것으로 많은 노동자도 참가하였고, 이후 사회운동이 고조되었다.

「말을 타고 온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도: **쌀소동의 확대**

지도: **아시아의 쌀 부족** 일본의 쌀 매점이 아시아의 쌀 소동을 초래했습니다.

<해 보자>

- 어떤 목적으로 시베리아 출병이 행해졌는지 생각해 보자.
- 쌀소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인터뷰한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 올지 생각해 보자.

**당시의 총리대신·군 병사·주부**

### 3. 평화를 추구하는 목소리와 독립을 추구하는 목소리

#### 베르사유 체제와 워싱턴 체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독일이 항복해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났다. 약 8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쟁[大戰爭]이었다. 다음해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려,② 독일은 해외의 식민지를 모두 잃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받았다. 일본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적도 이북의 남양제도[南洋諸島]와 중국에 있던 독일의 권익을 계승하게 되었다. (베르사유조약)

강화회의에서는 미국대통령 윌슨의 제안에 따라,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으로 **국제연맹**의 설립도 결정되었다. 일본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③ 그러나 미국, 패전국 독일, 혁명정부인 소련이 참가하지 않은 것도 있어, 국제연맹은 강한 힘을 갖지 못하였다.

1921년부터 군비 축소를 위한④ **워싱턴회의**가 열려 해군력의 제한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일본 외교의 중심이었던 일영동맹이 해소되었다. 이 회의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군부는, 미국이 일본의 중국이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가져, 국제협조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게 되었다.

지도 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

그림 ②: 베르사유조약의 조인

- 독일의 생각 군비 축소와 배상금 부담은 너무 무겁다.
- 미국의 생각 앞으로의 세계는 국제 평화와 민족 자결이 중요하다.
- 프랑스의 생각 독일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받고 영토를 회복하자.
- 영국의 생각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겼으니까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대표는 무엇을 요구했을까.」

사진 ③: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 막 생겨난 국제연맹에서 사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진력했다.

도표 ④: 군축의 움직임

### 거절당한 아시아의 민족 자결

윌슨은 또 민족 자결의 사상(주 1)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동유럽의 모든 민족은 독립을 인정받았지만, 아시아에는 민족 자결이 적용되지 않았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바라는 인도에서는, 간디⑥의 지도로 자결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도, 1919년 3월 1일, 게이쵸[京城](현재의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 독립 선언이 이루어지고 독립 만세를 외치는 민중 운동이 조선 각지로 퍼져 갔다. (3·1독립운동) 중국에서는 일본의 21개조의 요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1919년 5월 4일 베이징[北京]에서 대항의[大抗議] 집회가 열려, 운동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 갔다.

(5·4운동)⑤

주 1. 각 민족은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상. 러시아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도 이 사상을 주장했다.

그림 ⑤: 5·4운동 베이징의 텐안먼 광장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중국의 생각 일본의 21개조의 요구를 무효로 해야 한다.」

그림: 유관순 1904-20 서울의 이화학당(여학교) 재학 중에, 유관순은 3·1독립운동을 맞이했다. 관순은 운동에 가담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그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을 받아 옥사하고 말았다. 16세였다.

「한국의 생각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하고 싶다.」

사진 ⑥: 실을 뽑는 간디 간디는 「비폭력·불복종」을 주창하며,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운동을 했다.

<해 보자>

- 각국의 생각을 읽고, 여기에는 없는 일본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대사를 만들어 보자.
- 이 두 페이지에서 인물을 한 사람 정해, 당신의 의견을 편지로 써 보자. 왜 정했는지 그 이유도 써 보자.

#### 민본주의[民本主義]와 민족 자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민주주의를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를 받아들여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대일본제국 헌법을 토대로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을 설명하고, 민본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민중의 사상에 근거한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청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요시노는 민족 자결을 존중하는 주장을 펴서 3·1독립운동과 5·4운동을 평가하였다.

#### 4. 민중이 뽑은 정당에 의한 정치

##### 호헌운동[護憲運動]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정치는 정당을 무시하고 일부 번벌[藩閥]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1912(다이쇼 1)년이 되자 이 번벌 정부를 비판하고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정당에 의한 정치를 행하고 민중의 생각을 반영해 가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을

호헌운동[護憲運動]이라 하여 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등이 중심이 되었다. (제1차 호헌운동) 이듬해 민중과 의회의 비판을 받고 육군과 번벌의 지지를 받고 있던 가쓰라 다로[桂太郎] 내각이 무너졌다. 이러한 운동으로 내각이 쓰러진 것은 의회를 개설한 이후 처음으로 생긴 일이었다.

사진: 연설을 듣고 있는 민중 남자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투표소에 줄 지어 투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해 보자.」

그림: 선거 포스터 (교토 부립 종합자료관 소장)

도표: 다이쇼 시대의 정치의 움직임

### 정당 정치와 남자 보통 선거

그 후에도 정당에 의한 정치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쌀소동으로 무너진 내각을 대신하여 화족이나 번벌 출신이 아닌 하라 다카시[原敬]가 내각을 조직하였다. 하라는 평민재상이라 불리었다. 하라 내각은 대부분의 관료를 중의원 제1당인 입헌정우회의 당원이 접했던 최초의 본격적인 정당내각[政黨內閣]이었다.

그러나 1924년에 다시 정당을 무시한 내각이 성립되자 이전과 같이 호헌운동이 일어났다. (제2차 호헌운동) 그리고 다음 총선거에서는 호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새로운 정당내각이 탄생하였다. 이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 하에서 1925 (다이쇼 14)년 25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 선거권을 부여한 **남자보통선거**가 실현되었다.①② 남자보통선거의 실현은 그때까지 국민의 5% 정도였던 유권자가 20% 가깝게 늘어나는 커다란 개혁이었다.⑥

남자보통선거 실현 후에 정당내각은 8년간 지속되어, 국내에서는 군비의 축소⑤, 외교로는 국제협조정책을 지향하였다. 선거에서 뽑힌 정당이 내각을 만드는 것은 「헌정[憲政]의 상도[常道]」라 불리었다. 이처럼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운동이 활발해졌던 당시의 시대를 **다이쇼 [大正] 데모크라시 시대**라고 한다.

도표 ⑤: 일청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군사비 <『쇼와 경제사』> 「도표의 선을 덧그려 그래프를 완성해 보자. 덧그린 부분의 군사비의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해 보자>

- 1900-1924년 동안 당시의 정치가가 생각해야 할 문제를 두 가지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같은 문제를 뽑은 사람과 모의 정당을 만들어 포스터 등으로 정책을 주장해 보자.

###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여성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운동도 활발해졌다. 1911년 히라쓰카 라이초 등이 세토샤[靑鞆社]를 만들어 여성에 대한 낡은 습관과 사고를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이 되자 히라쓰카는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과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25년에 인정된 보통선거는 남성에게만 한정되고,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⑦

도표 ⑥: 유권자의 증가

도표 ⑦: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된 해** 일본 여성이 선거권을 얻을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 **히라쓰카 라이초**(1886-1971) 여성이 인권을 손에 넣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여성 참정권 획득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잡지 『청탑[靑鞆]』의 발간에 즈음해, 「시초에 여성은 태양이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치안유지법의 성립

남자보통선거가 실현된 같은 해에 정부는 **치안유지법**을 성립시켰다. 이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움직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1928년의 선거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대의사[代議士](역주: 중의원 의원[議員]의 통칭)도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주의 뿐 아니라 사회운동 전반에 걸친 단속에도 이용하게 되었다.

## 5. 도시 발전과 사회 운동

### 도시의 발전과 환경 문제

에도시대부터 정치의 중심이었던 도쿄는 「제도[帝都]」라 불리고, 오사카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①③ 도쿄의 인구는 1930년대에 500만 명을 넘고, 오사카도 1925년에 210만 명을 넘고 있었다.

또한 그때까지는 조카마치[城下町](역주: 영주가 거처하는 성 주변에 발달한 시가지)로부터 발달한 도시가 많았지만, 이 시대에는 새로운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가 급속히 늘었다.② 도쿄 주변에서는 가와사키[川崎]가 대표적이다. 도쿄에서 요코하마에 이르는 지역에는 공장이 집중해 게이힌[京濱] 공업지대가 만들어졌다. 도시의 발달에 수반해 지하철④이 개통되고 공장에서 올라가는 연기는 번영·발전의 심볼이 되었지만, 쓰레기와 분뇨를 둘러싼 생활 환경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일을 구해 농촌에서 이주해 온 공장노동자와, 공장노동자와 경영자와는 별도로, 관청과 회사에 근무해 급여를 받는 새로운 계층(샐러리맨)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시의 발전에 의해 일하는 여성도 늘어났다. 이전까지의 교사나 조산부[助産婦] 외에, 버스 차장과 타이피스트·전화 교환수 등에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여, 그녀들은 「직업 부인」이라 불렸다.

사진 ①: **오사카 발전의 상징 「신세계」** 권업박람회 터인 오사카부의 덴노지[天王寺]에 「신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에 선 것이 파리의 에펠탑을 본뜬 스텐카쿠[通天閣]이고, 그 주변은 루나 파크라 불린 유원지입니다.

지도 ②: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신흥 도시**

지도 ③: **오사카의 발전** 사철이 발전하는 동시에 연선의 주택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전철과 행락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림 ④: **도쿄의 지하철 개통을 알리는 포스터**

도표: **노동자(처·아이 2인)의 가계[家計]**

사진 ⑤: **관동대진재로 무너진 아사쿠사 12층[淺草十二階]** 12층 높이의 건물은 명소로서 유명하였다.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와 박해>

1923(다이쇼 12)년 9월 1일, 사가미만[相模灣]을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 도쿄와 요코하마를 직격[直擊]하였다. 각 가정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불이 나, 사망자·행방불명자 14만 명 이상, 이재민 340만 명 이상이라는 큰 피해를 냈다. 주택과 공장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피해를 크게 하였다. 혼란 속에서,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흘러, 자경단을 만든 주민이 조선과 중국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또한 사회주의자 가 박해를 입고 살해당했다.

### 활발해지는 노동·사회 운동

도시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문제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노동자는 단결해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스트라이크와 같은 노동쟁의를 일으켰다.⑥ 농촌에서도 소작인이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해서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이윽고 노동자와 소작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국 조직도 만들어졌다. 사회주의는 탄압받고 있었지만, 사회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다시 활발해졌다.

도표 ⑥: **노동쟁의에 가담한 노동자 수** (『메이지·다이쇼 국세 총람』, 『간결 쇼와 국세 총람』)

### 해방을 추구하여 쫓겨나는 사람들

「해방령」이 나온 뒤에도 일하는 조건이나 결혼 등의 차별은 없어지지 않아, 차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1922년 **전국스이헤이사[全國水平社]**가 창립되었다. 또한 아이누 사람들도 홋카이도 아이누협회를 창립해, 홋카이도 구 토인 보호법[北海道舊土人保護法]의 개정과 폐기를 요구하며 일어섰다.

### ●전국스이헤이사[全國水平社] 창립

차별 문제는 메이지시대 중반 경부터 다시 사회 문제로서 주목을 받아, 차별을 없애려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크게 바꾼 것이 1917년의 러시아혁명과 그 다음해의 쌀소동이었습니다.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이 쌀소동에 다수 참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생활 개선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기대는 것만으로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차별받는 사람들은 1922년에 전국스이헤이샤[全國水平社]를 창립하고,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해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 <수이헤이샤선언> (일부 요약)

전국에 산재하는 우리 부락 사람들이여, 단결하자!

인간 세상의 냉정함이 얼마나 차가운가, 인간을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인생의 따듯함과 빛을 회구하고 예찬하는 것이다.

스이헤이샤는 이렇게 태어났다. 인간 세상에 따듯함이 있어라, 인간에게 빛이 있어라.

#### <해 보자>

- 지도책을 펴고, 지도상의 신흥 도시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근세 봉기와 이 당시의 쟁의는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자.

## 6. 대중 문화·가두 문화

### 서양화되는 사람들의 생활

도시의 발달과 함께 생활의 서양화가 진행되고, 생활 양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대도시의 중심지에서는, 공공 건조물이 빨간 벽돌에서 지진에 강한 철근콘크리트가 되었다. 교외에는 비교적 유복한 샬러리맨 등이 사는 새로운 주택(문화 주택③)도 세워졌다. 문화주택에는 서양식 응접실이 갖추어지고 아이들 방도 만들어졌다. 그때까지 밥상 별로 따로 따로 나뉘어져 있던 식사도, 차부다이(역주: 다리를 접을 수 있는 낮은 밥상)를 둘러싸고 먹게 되어 일가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식사에서는 빵이 보급되고, 카레라이스, 오믈렛, 크로켓 등의 양식도 애호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비스킷과 캐러멜이 판매되었다.

주택지가 도시의 교외로 확대되자, 통근을 위한 교외 전차[電車]가 다니고 터미널역이 완성되었다. 휴일에는 교외 전차 터미널에 생긴 백화점이나 극장과 같은 오락 장소로 외출해, 연극과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구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도 인기가 있었다. 생활 습관의 서양화[西洋化]에 맞추어, 여성의 복장도 기모노에서 일하기 편한 양복[洋服]으로 변화해 갔다.

생활의 서양화는 농촌에도 조금씩 확산되어 갔다. 이윽고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이 생겨나고,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풍족한 생활에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도 출현하였다.

사진 ①: 서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 그때까지 마루방에 앉아 하던 조리를 대신해, 입식

개수대가 갖추어지고, 전열기[電熱器] 등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진 ②: 가스 밥솥과 가스 콘로 가스도 보급되었습니다.

그림 ③: 문화 주택 화풍[和風](역주: 일본풍)과 양풍을 함께 갖춘 주택입니다. 응접실이 있고, 가스·수도·전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활과 비슷한 면이 있군.」

#### <야구>

일본에 전해진 것은 1870년 경입니다만, 1910년대 후반 무렵부터 점차 휴일의 즐거움으로 활발해져, 지금의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되는 중등학교 야구대회가 19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엔구장[甲子園球場]이 만들어진 것도 이 무렵입니다. 한편 베이브 루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팀과 대전하기 위해, 프로야구팀도 1934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사진 ④: 양철로 만들어진 장난감 (요코하마시 양철 장난감 박물관 소장)

사진 ⑤: 소꿉놀이 도구 (도쿄도 일본완구자료관 소장)

사진 ⑥: 어린이를 위한 잡지(도쿄도 일본근대문학관 소장)

그림 ⑦: 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二筆] 「구로후네야[黒船屋]」 회화도 대중적인 것이 생겨나, 유메지의 그림은 여학생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진 ⑧: 채플린 「황금광[黄金狂] 시대」

#### <국제>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1920년대가 되자 「모던」(근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문화 속에 미국의 대중 문화가 침투하게 됩니다. 특히 영화가 유행을 해서 할리우드의 영화 스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멋을 낸 젊음이들은, 모던 걸(모가), 모던 보이(모보)라 불렸습니다.

#### 교육 발전과 문학·예술

메이지 당시 낮았던 취학률도 거의 100%가 되고, 대학이나 전문학교도 늘어났다. 교육의 보급에 따라 신문 연재 소설 등을 읽는 사람도 늘어나, 발행 부수가 100만 부를 넘는 신문이 출현하였다. 또한 종합 잡지와 여성·아동을 위한 잡지⑥도 다수 출판되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芥川龍之介]와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등이 묘사한 문학 작품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

#### 지역 문화의 재평가

서양화[西洋化]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민중의 생활을 기록하고자 야나기타 구니오 [柳田國男]는 농촌을 방문하고, 민속학을 제창하였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민중이 창출해 낸 작품으로서 「민예[民藝]」를 전국에서 구했다. 오키나와 고유의 문화와 아이누민족의 전승[傳承]도 재평가받게 되었다.

사진: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 민예의 「미[美]」를 평가

잡지 『백화[白樺]』에서 집필을 한 인물입니다. 조선 공예품의 아름다움에 감동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에 조선민족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인들이 창출해 내는 미에도 관심을 가져, 「민예」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해보자>

- 정인[町人]의 생활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표로 만들어 보자.
- 이 시대에 태어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품과 기업을 찾아, 레포트로 정리해 보자.

### (역사의 무대 9) 농촌 생활과 근대화 - 사쿠[佐久] 지방

19세기 말, 생사의 수출 증가에 수반해 나가노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양잠업이 활발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밭을 넓혀 수입을 얻는 것이 지향되는 한편, 도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근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생사 가격이 폭락하자 양잠업은 큰 타격을 받아 농촌 사람들의 생활은 어려워져 갔습니다. 당시의 사쿠마 지방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1. 농촌의 모습

누에를 키울 때에는 잘 장소도 없을 정도로 집안에 온통 누에 채반을 두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기누키야네(역주: 통풍을 위한 지붕)를 가진 집도 만들어졌습니다.

#### 2. 농촌의 교육과 근대화

농촌에서는 양잠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계산과 식자[識字]를 필요로 해, 취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양잠·제사업의 발전과 함께 교육의 충실이 기해져, 근대 과학적인 사고도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전화·철도의 개설 등, 지역의 근대화도 진행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어린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교육운동도 발전했습니다.

도표 ⑥: 바뀌는 사쿠지방[佐久地方] 사람들의 생활

사진 ⑦: 구[舊] 나카고미학교(사쿠시[佐久市]) 1875(메이지8)년 건축된, 일본 최초로 일컬어지는 서양풍 교사[敎舍]로 된 소학교입니다.

<국제> 파란 눈의 인형을 통한 교류

쇼와[昭和] 초에 이민 문제로 일미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인 규릭 등은

어린이들에게 양국의 관계 개선을 맡기고자, 1만 2000 개 이상의 인형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나가노현[長野縣]에서도 286 개의 인형을 학교에서 받아들였지만, 거의가 태평양전쟁 중에 「적국의 인형」으로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형을 지킨 교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노현에는 홋카이도와 나란히 전국 1위인 23개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 당시의 신문 기사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信濃毎日新聞]」 1927년)

### 3. 「만주」로의 이민

생사의 가격이 최대 수출처인 미국의 불황으로 폭락하자, 나가노현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제사[製絲] 공장이 도산해, 양잠 농가는 거액의 빚을 안게 되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각지의 농촌 재건 정책은 좀처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으로 개척 이민이 권장되자, 신천지를 찾아 나가노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건너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귀국할 수 없었다.

사진 ⑧: 당시의 신문 기사 「시나노마이니치 신문[信濃毎日新聞] 1927년」

도표 ⑨: 누에고치의 가격 추이

사진 ⑩: 오히나타[大日向] 마을을 출발해 「만주」로 향하는 사람들 누에고치와 목탄이 주요 생산물인 오히나타 마을에서는, 불경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마을을 둘로 나누어 마을 주민의 반수를 「만주」로 보냈다. 전국에서도 처음 있었던 시도였기에, 「모범촌[模範村]」으로 연극과 영화로도 소개돼, 활발하게 선전 되었다.

지도 ⑪: 전국으로부터의 「만주」 이민(『나가노현 만주 개척사 총편[總編]』) 이민은 개척단과 의용군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도 ⑫: 만몽개척단[滿蒙開拓團]의 분포

## 2절 일본이 아시아에서 행한 전쟁

### 1. 세계 공황과 각국의 선택

#### 세계 공황의 시작과 각국의 대응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장[戰場]이 되지 않았던 미국은 연합국에 물자를 수출하고 또한 대전 후에도 유럽의 부흥에 자금을 빌려주어 큰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번영하였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생산이 점차 회복되고 인도나 중국에서도 공업이 발달하자 미국의 제품은 팔리지 않게 되었다.

1929(쇼와 4)년 10월에 뉴욕에서 주가가 대폭락하였다. 미국 경제는 일변하여 불경기가 되고 실업자가 넘치게 되었다. 이 불경기는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있던 유럽에도 확산되어 세계공황[世界恐慌]이 되었다.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딜**(처음부터 다시 함) 정책을 시행하였다.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과 같은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조정하였다.

많은 식민지를 가진 영국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무역을 활발하게 행하고 외국 상품을 배척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재건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블록경제**라고 한다. 프랑스와 미국 등도 블록경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어려워졌다. 한편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독재체제 하에 「5개년 계획」이라는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 세계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진: 1920년대의 뉴욕 미국의 번영은 뉴욕의, 그리고 주식거래소가 있는 월가의 번영이었습니다. 고층빌딩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진: 일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진 사람들이 살게 된 공원

사진: 1929년 대폭락한 날의 월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투자가는 이를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이 날은 단번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표: 각국의 공업생산

## 파시즘의 대두

이 공황에 대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독재정치에 의한 군사력의 재강화에 의해 국력을 키워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이 독재정치를 행하고 에티오피아를 침략하였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가 선거에서 제1당이 되어(주 1) 정권을 잡자⑤, 공공사업으로 실업자를 줄이는 한편 다른 정당을 해산시켜 국민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빼앗았다. 또한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의식시키기 위해 유대인을 해로운 민족이라 단정짓고 박해하였다. 나아가 베르사유조약을 무시하고 재군비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국주의적인 독재를 행하는 정치를 **파시즘**이라고 한다. 이후 파시즘을 바탕으로 한 나라들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나라들의 대립은 분명해져 갔다.

주 1.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헌법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해 총통이 되었다.

## <독일의 한 소녀의 작문 「유대인은 우리들의 재앙이다」>

……유대인은 우리들에게서 교묘하게 돈과 재산을 빨아 들인다……. 우리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총통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가게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1페니(독일의 화폐)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일원을 죽이는 것이 된다. 하일 히틀러!

#### <독일의 어느 장인의 증언>

1939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이다. 누구나 생활이 가능했고 직장을 얻어 만족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히틀러)가 전쟁 같은 것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었으면 좋았다 라고. (『나치즘의 기억』에서)

체제가 민주주의이든 독재이든, 어떤 것이든 발전과는 관계 없었지요. 정치 형태에도 무관심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과 찬스가 있으면, 어떤 정치체제이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다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에서)

사진 ⑤: 나치스의 정치집회 중앙에 있는 것이 히틀러입니다. 이런 집회는 선전[宣傳]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도표: 세계공황과 각국의 움직임

#### <해보자>

- 과시즘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자.
- 독일 민중이 선거에서 나치스를 지지한 것은 왜인지 이야기해 보자.

## 2. 벽에 부딪힌 일본의 선택

### 일본 경제의 담보와 세계 공황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은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불경기를 맞고 있었다. 게다가 세계 공황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도시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임금 미지급 등의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회사와 공장이 망해서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등 사회의 불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시장을 독점했던 재벌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농촌에도 불경기의 여파가 확대되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도 수출처인 미국에서 생사[生絲]가 잘 팔리지 않아 양잠의 불경기 등으로 실업자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는 없었다. 또한 1931(쇼와 6)년의 대홍작으로, 홋카이도[北海道]와 동북 지방의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맛보았다.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며, 소녀들의 몸팔이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고 해결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소작쟁의는 더욱 격렬해졌다. 또한

민중들 사이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만주」의 지배를 추진해, 불경기를 해결하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 갔다.

### 만주사변과 국제연맹 탈퇴

중국에서는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중국은, 일본의 중국 내 권익의 중심이던 남만주철도와 병행하는 철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관동군, 사진 4)은, 1931년 9월, 남만주철도의 평톈[奉天](현재의 선양[瀋陽]) 부근에서 폭파 사건을 일으켜(류타오후사건[柳條湖事件]), 이를 중국 측이 한 일이라며 공격을 시작해, 「만주」 전체를 점령했다. (만주사변, 사진 1) 정부는 처음에는 불확대 방침을 취했지만, 불경기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정부에게 군부를 통제할 만한 힘이 없었기에, 결국 군부에 협력했다.

1932년, 일본은 「만주국」을 만들었다.② 실권은 일본이 쥐고, 산업도 지배했다. 중국은 일본의 무력 침략이라고 국제연맹에 호소했다. 국제연맹은 조사한 후에, 일본에게 군대 주둔지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은 따르지 않고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사진 8)

사진 ①: 1931년의 신문 기사

지도 ②: 「만주」·몽고의 범위

「만몽[滿蒙]이 일본의 생명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도표 ③: 공황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연도	사건
일본 경제의 동향	
1923(다이쇼 12)	관동대진재
1927(쇼와 2)	금융 공황
1930	쇼와[昭和] 공황
	중국 침략에 의한 해결
1931	만주사변
1932	「만주국」 건국
국제적인 고립과 군국주의화	
1932	5·15사건
1933	국제연맹 탈퇴
1936	2·26사건
1937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
	일중전쟁에 돌입

사진 ④: 구관동군사령부[舊關東軍司令部] 창춘[長春], 현재는 중국의 지린성[吉林省]

정부와 공산당 위원회의 건물이 되어 있다.

### 정당 정치의 중단

1932년 5월 15일, 해군 청년 장교들이 정치 본연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누카이 쓰요시 [犬養毅] 수상을 암살하였다. (5·15사건) 이 사건 이후, 군인과 관리 출신자들이 내각을 만들게 되어서 정당 정치는 중단되었다.

또한 1936년 2월 26일에는 육군 부대를 이끌었던 청년 장교가 대신들을 살상하고, 수상 관저와 의사당 주변을 점거하였다. (2·26사건, ⑤, ⑦)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 이후 부대가 더욱 힘을 키워(그림 6) 군국주의 사상이 강화되고, 국민은 군부에 반대할 수 없게 되어 갔다.

사진 ⑤: 2·26사건을 일으킨 병사들

그림 ⑥: 2개의 사건에 따른 변화

그림 ⑦: 2·26사건의 풍자화 <가와사키시 시민박물관 소장>

「군인의 군화가 국회의사당을 짓밟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사진 ⑧: 국제연맹 탈퇴를 보도한 신문

<해 보자>

- 이 두 페이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골라,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한 신문의 헤드라인을 붙여 보자.
- 정당 정치가 중단됨에 따라,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그림 6을 보며 서로 이야기해 보자.

## 3. 밀고 나가는 일본과 저항하는 중국

### 일중전쟁[日中戰爭]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뒤따라 국제연맹을 탈퇴한 독일에 접근해, 미국·영국과의 대립을 깊게 했다. (주 1) 또 일본군은 「만주」에 그치지 않고, 자원을 찾아 중국 북부에도 군대를 진격시켰다.

1937(쇼와 12)년 7월, 베이징 교외에서 일종의 양군이 충돌한 루거우차오사건[盧溝橋事件]을 계기로, 일중전쟁이 일어났다.② 일본군은 중국 남부로부터도 침공해, 상하이[上海]와, 당시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했다. 난징에서는, 병사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많은 중국인을 살해하여,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일본군의 만행[蠻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난징대학살).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일본의 침공 속에서, 중국에서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와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이 대립해,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대립을 일시 멈추고, 일본에 공동으로 맞서는 항일민족통일전선을 만들었다. 일본군은 중국의 대도시와 철도를 점령해 갔지만, 그것은 점([点], 도시)과 선([線], 철도)의 지배에 불과했고, 넓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어 갔다.

주 1. 파시즘의 세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당·공산당·지식인 등이 인민전선[人民戰線]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인민전선 정부가 만들어졌다.

사진 ①: 출정 병사의 배웅(효고현[兵庫縣] 단바시[丹波市])

「사진 속의 출정하는 병사와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지도 ②: 일중전쟁

###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과 일본의 세대

일중전쟁이 장기전이 되자 정부는 「거국일치[舉國一致]」를 목표로 하여 모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예산의 대부분이 군사비로 사용되게 되었다.

1938(쇼와 13)년, 정부는 국민과 물자를 우선적으로 전쟁으로 돌리기 위해 **국가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국민을 강제적으로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당은 군부에 대한 저항을 중지하고 1940년에 해산하여, **대정의찬회**[大政翼贊會]라는 전쟁에 협력하기 위한 조직에 합류해 나갔다. 사회운동은 쇠퇴하고 노동조합도 해산당하였다.

신문·잡지·라디오방송 등의 매스미디어도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정부의 통제를 받고 전쟁을 선동하게 되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른채 (주 4) 승리를 믿게 되었다. 전쟁에 비판적인 활동은 언론을 포함하여 곤란해 졌다.

물자가 부족해져 오자 의약품이나 식료품의 통제가 시작되어 1941년부터는 쌀도 배급이 되었다. 정내회[町内會](역주: 주민의 자치 조직)와 그 밑에 도나리구미[隣組]가 만들어져 배급을 행하거나 정부로부터의 전달을 회람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 <라디오>

일본의 라디오방송이 개시된 것은 1925년으로, 다음 해에는 일본방송협회(NHK)가 창립되었습니다. 당분간은 NHK 만으로 정치가의 연설 이외에 스포츠 중계나 라디오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석식으로 헤드폰이 필요했습니다만, 진공관이 발명되자 가족이 모여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큰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신문과 라디오의 뉴스를 통해 전쟁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라디오 앞에 모인 가족**)

사진: 불허가 도장이 찍힌 사진    전장에서 찍힌 사진은 군부가 그 내용을 검열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소개되지 않은 사진도 있었다.

사진: 사치에 대해 훈계하는 간판 (도쿄 긴자)

<해 보자>

- 당시 전쟁에 반대했던 국민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조사해 보자.
- 전쟁에 찬성하는 표제의 기사와 반대하는 표제의 기사로 신문을 만들고 신문의 역할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 4. 전쟁 확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유럽에서는 1939(쇼와 14)년 히틀러를 지도자로 하는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후 폴란드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였다. 이것에 대해 그때까지 독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온 영국·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과리를 점령하고 발칸반도까지 정복하여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한 독일은 1941년에 불가침조약을 깨고 소련으로 진격하였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손을 잡았다. 독일은 각지에서 유대인을 잡아 강제수용소로 보내어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 <스기하라 지우네(1900-1986) 유대인을 구한 일본인>

1940년 리투아니아의 일본영사대리 시절에 박해를 피하려는 유대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시베리아철도를 경유해서 쓰루가(후쿠이현)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여, 고베와 요코하마로부터 미국을 향해 출국하였습니다. 약 6천 명의 유대인이 그로 인해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지도: 태평양전쟁 전장[戰場]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에 걸쳤다.

「어째서 일본은 미국과도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

그림: 버마의 유전을 공격하는 일본

지도: 개전 때의 세력 범위 (1941-42년)

사진 ①: 진주만 공격

그림 ④: 일본과 미국의 생산력 비교

#####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전선[戰線]

일본은 1940년, 독일·이탈리아와 **일독이[日獨伊] 삼국동맹**을 맺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듬해 일본은 소련과 **일소중립조약**을 맺어, 북방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추진하려고 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석유와

고무 등의 자원을 동남아시아에서 얻으려 한 것입니다.③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는 영국과 함께 대서양헌장(주 1)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석유와 고철 수출을 제한하고, 영국·네덜란드와 협력해 일본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다. 미국은 「만주사변」 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 교섭이 시작되었지만, 교섭은 결렬되었고, 일본은 미국과 싸울 자세를 굳혔다.

주 1. 그 내용은, 영토를 확장하지 않을 것과, 모든 국민이 공포와 결핍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생명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평화를 확립하는 것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

1941년 12월, 일본군은 영국령 말레이 반도에 상륙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일본은 미국·영국(주 2)에 선전포고를 해, 태평양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 주 3)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승리를 거두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필리핀·버마(미얀마) 등을 점령했다. 이 지역은 구미 제국의 식민지였다. 일본은 이들 지역을 구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아시아의 제 민족만이 번영해 가자고 하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을 주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에게 심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 억압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각지에서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주 2. 미국·영국 등을 연합국이라 하고, 일본·독일·이탈리아를 추축국[樞軸國]이라고 부릅니다.

주 3. 전쟁 중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만들 목표로,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렀다. 태평양전쟁은 본래 미국측이 사용한 호칭으로, 근래에는 아시아도 전쟁터였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해 보자>

- 일본군의 최대 진출선[進出線]의 범위에 현재 몇 나라가 있을까. 지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이만큼 전선을 확장한 것은 왜일까. 지리적·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 5. 식민지 지배와 저항

「어머, 철도 포스터에서는 도쿄부터 「만주」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

#### 「만주」에서의 일본인의 생활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당시, 다렌 등의 조차지[租借地]와 남만주철도가 있던 「만주」에는 이미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을 하는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정부는

20년간 500만 명의 농민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 일본 국내에서 만몽개척단 [滿蒙開拓團]을 모집했다.① 경지가 적은 산촌의 차남·삼남이 중심이 되었고, 생사[生絲] 가격 폭락으로 힘들어진 나가노현 등의 농민도 「만주」로 건너갔다.②

이주한 장소는, 소련과의 국경에 가까운 곳이나 일본 지배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한 곳이 많아, 농업 이민이면서 병사로 싸워야 하는 역할도 맡았다. 일중전쟁이 본격화되자, 성인 남자를 조직적으로 보내는 것이 어려워져, 19세 이하의 소년인 만몽개척 청소년 의용군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전쟁 말기에는 한 집안의 주인[主人](역주: 가장)까지 전쟁에 소집되어(강그리 동원), 대륙에서 농업 경영이 곤란해졌다.

그림 ①: 대륙 여행을 독려하는 포스터 (도쿄도 교통박물관 소장)

지도 ②: 일본과 식민지 (『쇼와국세총람[昭和國勢總覽]』 외)

그림 ③: 인도에서 배부된 일본군의 선전 전단 아시아의 민중이 협력해서, 영국을 내몰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전단이 각지에 배부되었다.

###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 중국 사람들

「만주」 이민이 경작하는 토지의 대부분은, 중국인이 경작하던 곳을 헐값에 몰수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토지를 잃은 중국 농민 중에서 일본인의 소작인이 된 사람도 나왔다. 불만을 품은 중국인들은 일본인 개척단 마을을 습격하는 등,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④ 또한, 「만주」에 있던 일본인 중에 일본인 이외의 민족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중국인의 항일 의식을 강하게 했다.

사진 ④: 민가에 그려진 항일의 호소

### 식민지 점령하의 모습

전쟁이 격렬해지자, 일본은 총력을 다해 전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사람들을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삼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에서는 「국어」로 일본어를 가르쳤고, 조선어와 중국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황거[皇居]를 향해서 경례하는 등, 천황에 대한 숭배도 강제로 이루어졌다.⑥ 게다가 조선에서는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 주 1)도 행했다. 일본 국내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기업 등에서 반강제적으로 할당을 정해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모아, 일본 각지의 탄광·광산 등으로 보내 저임금의 힘든 노동을 강요했다.

일본군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에서도 물자와 식량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기도 하고, 군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어 교육 등의 정책도 추진되었기 때문에⑤, 이들 지역에서도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주 1.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별성[別姓]인 조선 사람들에게는 동성[同姓]을 쓰는 셈이 되어, 일본의 가족 제도가 조선에 유입되었다.

사진 ⑤: 일본어를 배우는 뉴기니 사람들

사진 ⑥: 조선 신궁 ([朝鮮神宮], 서울) 황민화 정책의 하나로서, 조선 각지에 신사[神社]가 세워졌다.

<외국 교과서가 기술하는 일본의 지배>

- 일본인은 아시아인과 형제 의식을 쌓으려고 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을 「형」이라고 하며, 태평양전쟁을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아시아의 빛 일본, 아시아의 보호자 일본, 아시아의 지도자 일본」이라고 하는 삼아운동[三亞運動]을 전개했다. ...일본은 군사 산업을 위한 자원(원자재)을 지배하고 획득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식량을 가로채려고 했다.
- 일본군 점령 시대는 사람들의 힘과 부[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다. ...주민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로무샤(노무자)가 될 것을 강제한 것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원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다. 거기서 얻은 이익은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 비용으로 쓰였다. 그 외에 사람들은 병사들의 식료품을 채우기 위해 일정량의 겨·옥수수·가축 등을 요구받았다. ...연달아 계속 부과되는 의무와 강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대규모 로무샤 징집은 (자신들의) 생산 활동을 위한 노동력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영양 부족과 기아가 만연했다. 식료품 부족에 이어 의복도 부족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인간답지 않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교과서에서, 일부 요약)

<해 보자>

- 일본 식민지 정책의 예를 몇 가지 들어, 카드를 만들어 보자.
- 각각의 카드에 둘 이상의 관점에서 의견을 쓰고, 서로 이야기해 보자. **일본 정부·현지 주민·식민지로 건너간 이민 등**

## 6. 장기화되는 전쟁과 고통스러운 생활

「위의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가족이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상상해 보자.」

전시[戰時]하의 사람들의 생활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쌀을 비롯해 대부분의 생필품이 배급제로 되어, 사람들의 생활은

힘들어졌다. 양이 부족하고 질도 저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암시장에 의존한다든지, 농촌에 직접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했다. 특히 금속 제품은 병기[兵器] 제조를 위해 보내져서 부족했기 때문에, 도자기로 만든 주전자라든가 다리미 등 대용품이 쓰여졌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물건이 충분하지 않아, 배고픔과 곤란 속에서 생활이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전쟁」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생활을 견디고 있었다.

1941년 그 때까지의 진조고등소학교[尋常高等小學校]는 국민학교가 되었고, 군사 교육이 강화되었다.① 나중에는 중학생과 여학생이 공부를 중단하고, 군수[軍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노동 동원[勞動動員]) 일본이 불리한 정세가 되자, 그 때까지 징병되지 않았던 대학생들도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 (학도 동원[學徒動員])② 또한 대만과 조선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

1944(쇼와 19)년이 되자 공습이 격렬해져서,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는 물론, 군사 시설과 공장이 있는 각지의 중소 도시도 공격을 당해, 많은 소학생들이 공습을 피해 농촌으로 집단 소개[疎開]를 했다.③

사진 ①: 봉안전([奉安殿], 역주: 신주[神主]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시는 곳)에

최경례([最敬禮], 역주: 정중한 경례)를 하는 소학생 (도쿄도) 학교에 놓인 봉안전에는 친황·황후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어, 등교하면 최경례를 하는 것이 의무로 주어졌다.

사진 ②: 비행장에서 일하는 여학생들

사진 ③: 피난한 어린이들(군마현[群馬縣])

사진 ④: 잡지의 부록인 「결전[決戰] 가루다 (역주: 놀이딱지)」

<해 보자>

- 지금의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의 학생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
- 당신이 사는 지역의 위령비[慰靈碑]에는 어떠한 경위가 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듣고 조사해 보자.

(역사의 무대 10) 전쟁터가 된 오키나와[沖繩]\*

## 7.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

### 전국[戰局]의 악화

1942(쇼와 17)년 미드웨이해전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의 전국[戰局]은 악화되었다. 일본군은 태평양제도[太平洋諸島] 과달카날섬에서의 싸움에 패해 철퇴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연합국측에 빼앗겼다. 남양군도[南洋群島]의 사이판섬이 미군에 의해 점령되자, 이곳을 기지로 해서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도 행해지게 되었다.③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

미국의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은, 처음에는 야간에 공장을 노린 폭격이었습디만, 후에는 소이탄을 사용해 도시를 불태워 버리게 되었습니다. 1945년 3월 10일 새벽의 도쿄대공습에서는, B29의 대편대에 의해 도쿄는 불태워져, 10만 명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도쿄·오사카 등의 대도시 외에, 중소[中小]를 합쳐 100을 넘는 도시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사진 ①: 원폭[原爆]에 의해 파괴된 히로시마 시내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소장)

「어째서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것일까.」

지도 ②: 원폭의 피해[被災] 범위

지도 ③: 전국[全國]의 공습 피해

원폭 투하

유럽 전선에서도 연합국군이 반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1943년 9월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45년 5월에 독일도 항복하였다. 전국[戰局]이 바뀌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도조 히데키 [東條英機] 수상이 퇴진하고 1945년부터는 본토결전이 외쳐지게 되었다.

한편 오키나와전을 전후해서 연합국측은 알타(소련)와 포츠담(독일)에서 회의를 열고, 포츠담 회의에서 미국·영국·중국의 이름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포츠담선언). 그러나 이 선언을 일본이 묵살했기 때문에, 전쟁의 조기 종결을 바란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廣島]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原子爆彈]을 투하하였다.①②④⑤⑥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투하된 한 발의 원자폭탄에 의해, 14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히로시마시 중심부는 괴멸되었다. 이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후에도 사망자는 늘어나 5년 후인 1950년까지의 사망자 수는 20만 명 이상에 달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나가사키에서도 1945년 말까지 7만 명을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어느 소녀의 일기 (호소카와 고지·가메이 히로시 『히로시마 제일현녀[第一縣女] 1학년 6구미([組], 역주: 반) 모리와키 요코의 일기』에서 일부 요약)

8월 3일(금) 맑음

조금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언니들께서는, 모두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어떻게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도 농원[農園]에 간다. 열심히 일하자. (\*언니들=여학교 상급생)

8월 4일(토) 맑음

오늘도 농원 작업이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더웠지만 참고 열심히 일했다.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부두에서 모자를 바다에 날려 보냈다. 눈 앞에서 출렁이고 있었지만 잡지 못했다. 모처럼 엄마가 사 주신 것인데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다.

#### 8월 5일(일) 맑음

오늘은 가정 수련일이다. 어제는 숙부가 와서 집안이 대단히 북적거렸다. 「언제나 이렇다면 좋을텐데」 하는 마음이다. 내일부터는 가옥 소개[疎開]를 위한 정리다. 열심히 할 생각이다.

#### <소녀의 마지막을 간병한 여성의 기록>

너무나도 몸 전체의 화상이 심하고 중상이라, 이래서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중략... 「엄마 아직 안 왔어?」라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제 금방 와, 금방이니까 정신차리고 있어, 참고 있어」라고, 몇 번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물 주세요」 「차 주세요」 「등 쓰다듬어 주세요」 「가슴 쓰다듬어 주세요」 「가슴 문질러 주세요」 「가슴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아줌마, 손 잡아 주세요」 「더워, 부채 부쳐주세요」라고 하시기에,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아가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도착하시지 전에 영면하셨습니다.

(8월 5일을 마지막으로, 소녀에 의해 일기가 쓰여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8월 6일에 소녀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히로시마 원폭[原爆]으로 죽었습니다. 13세였습니다.)

사진 ④: 모리와키 요코[森脇瑤子]

사진 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사진 ⑥: 당시의 시간표

도표 ⑦: 원폭 관련 연표

#### <해 보자>

- 히로시마의 피해 상황을 참고로, 당신이 사는 지역에 원폭이 떨어질 경우 어떤 피해를 생각할 수 있는지 지도에서 확인해 보자.
- 미국은 어째서 원폭을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몇 개 들어 보자.

### 8. 각각의 패전과 「전후[戰後]」의 출발

#### <각각의 패전 ①>

「전쟁이 끝나 버렸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돌연 일어났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눈앞이 캄캄해 졌다가 빨강게 되었다 한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폐하, 어째서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대체 이 오명을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면 절대 안된다.

만일 속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병과 함께 죽는 것 밖에 없다. 적의 전차가 상륙하면, 나는 제일 먼저 돌격해 육탄 공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오명을 씻고자 했는데, 그것을 못한다니!

폐하, 어째서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어째서 『집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구마 무네요시[小熊宗克],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며-중학생의 노동 동원 일기』에서, 일부 요약)

#### <각각의 패전 ②>

「친구들 중에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분하기보다는 좀더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전쟁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이었는가라는 발견이었다. 나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겨울과 같은 (그런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자연 현상이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만둘 수 없을 것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기타야마 미에[北山みえ], 「인간의 혼은 죽지 않는다」 『쇼와전쟁문학전집』 14에서, 일부 요약)

#### <각각의 패전 ③>

「『그래 그래. 그런데 후미코[文子], 오늘은 팔밥을 지어 보자. 당연히 패전을 축하한다고 하면 남 듣기에 안 좋으니까, 명목은 한 달 늦은 오봉(역주: 일본의 추석)으로 하자. 본심은 살아 남은 것에 대한 축하지만.』...(중략)... 저녁 밥상에 모두 모였을 때,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축하합니다』 라고 말한다.」

(도미쓰카 기요시[富塚清], 『어느 과학자의 전중[戰中] 일기』에서, 일부 요약)

「패전에 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 중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방송을 듣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전쟁의 종결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소련도 일소중립조약을 깨고, 「만주」라든지 가라후토([樺太], 역주: 사할린) 등으로 쳐들어 왔다. 그 결과, 일본은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8월 15일, 천황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①

이렇게 해서, 태평양전쟁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은 이탈리아·독일에 이은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에 끝났다. 「만주사변」부터 세어 보면 15년간의 긴 전쟁이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과 대만, 일본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해방을 기뻐했다. 해외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660만 명의 일본 국민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본으로 철수하게 되었다.④

사진 ①: 패전을 알리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미리 중대한 방송이 있다고 예고를 들은 사람들은 천황의 목소리로 패전 소식을 알았다.

사진 ④: 「만주」에서 돌아온 어린이들

### 지금도 남아 있는 전쟁의 상흔[傷痕]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의 사망자는 130만 명 이상이라고 하며, 민간인도 60만 명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소련이 참전한 후,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에 억류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중국에는 패전 후, 「만주」에서 육친과 생이별하고 중국인에게 양육된 수천 명의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가 있다. 이 사람들의 육친 찾기가 198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일본이 점령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다. 전세계적으로는 사망자 수가 3,0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②

### 그림 ②: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

#### <패전하의 어린이들>

식량 부족은 8월 15일을 경계로, 더욱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학동 소개([學童疎開], 역주: 어린 학생들이 공습을 피해 피난하는 것)한 어린이들은 백합 뿌리를 캔다든지, 뽕나무 열매를 먹는다든지, 민물 게를 구워 먹는다든지, 들풀을 뒤진다든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렸지만, 영양 부족으로 중기가 나는 아이들이 속출했다. 게다가 벼룩과 이가 엄청나게 늘어, 그나마 있는 영양분도 전부 빨아먹어 버렸다.

(사오토메 가쓰모토[早乙女勝元], 『패전 후의 어린이들』에서)

### 전후의 시작

공습으로 주택과 공장이 타버려③, 많은 사람들은 살 집도 직업도 없었다. 특히 도시에서는 식량 부족이 심각해서, 배급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배급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암시장⑥이 형성돼, 농촌으로 식량을 직접 사러 가는 일이 성행했다.⑤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와 「만주」·조선·대만 등에서 철수한 사람들도 더해져, 1945년 말에는 실업자가 6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때까지의 군국주의에서 해방되고, 언론 통제를 받고 있던 대중 매체로부터는 전쟁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알려고 하는 주장도 나타났다.⑦

사진 ③: 1945년의 도쿄 불탄 자리에 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 ⑤: 가이다시 열차 ([買出し列車], 역주: 농가에서 직접 식량을 사려고 시골로 가기 위해 타는 열차)

사진 ⑥: 암시장 모습

사진 ⑦: 전후에 나온 잡지 (도쿄도 일본근대문학관 소장)

<해 보자>

- 「각각의 패전②」를 읽고, 왜 전쟁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왜 전쟁은 반복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모두가 서로 이야기해 보자.

(역사에 도전) 전시하의 정보와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시하의 자료를 읽고-

**도전해 보자!**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걸쳐, 전쟁 상황이 험겨워지자 일본은 총력전 체제가 되었다. 생활도 더욱더 힘들어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며 전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왜 전쟁 뒷바라지를 계속했을까요? 전쟁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아래에 당시 자료를 소개했다. 이것들을 읽고, 당신이 느낀 점을 모두와 함께 서로 이야기해 보자.

<자료 1> 전시하의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에 소년용 잡지에 게재된 작문입니다. 「잘 읽어주세요」라는 설명 다음에 소개되었다. 당시 소학생 대부분은 이 문장을 읽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교과서와 비교해서 읽어 봅시다.

• 「빨리 사이 좋게」 평토편[奉天]의 진조[尋常]소학교 5학년 학생의 작문

지금 일본군과 한창 싸우고 있는 중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 선생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자세하게 들었다. 중국은 아직 그다지 개화되지 않은 나라로, 사방에 대장[大將]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양민으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아 그것으로 느긋하게 놀고 있다. ……

이러한 나라와 일본은 어째서 싸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 전체와의 전쟁이 아닌, 나쁜 이들 군대와 전쟁입니다. 일본은 전쟁에는 강하다. 중국은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제소하였다. 중국은 입에 발린 소리로 속이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

일본이 빨리 중국과 사이가 좋아져서 동양의 평화를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나도 빨리 전쟁이 끝나 만주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추위 속에서 싸워 주시는 군인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력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소년구락부[少年俱樂部]』 1932년 2월호에서, 일부 요약)

「중국은 『그다지 개화되지 않은 나라』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당시의 일본인이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여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동일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일본인과 평등한 입장에 서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사이 좋게 지내고 싶다』 는 마음이었다고 해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런 문장일지도 모르겠군.」